

##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70)

## 褒表老儒

표 표 노 유

나이 많은 유자(儒者)를 기리고 표양하십시오



권중달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더니 이른바 영수 회담(領袖會談)을 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국정에 관하여 회담한 것이다.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면서 진행됐지만, 끝나고 나서 합의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자기들이 잘했다는 발표만 있었다.

사실 지난 총선 시기에 여야의 각 정당에 내세운 것은 심판(審判)과 민생(民生)이었다. 야당에서는 정권(政權)을 심판하자고 하였고, 여당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출마한 야당 대표들을 심판해 달라라는 것이었다. 구태어 구별하자면 한쪽은 정치를 잘 못했다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죄를 짓고도 처벌을 면하려는 사람을 걸러내자는 말이였다.

그러나 선거라면 당연히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내세워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으려 해야 했는데, 상대방의 흠집을 드러내어 그 흠집이 없는 나를 뽑아 달라고 했으니 여야를 막론하고 자기들이 내세울 만큼 잘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고백한 것으로 보였다. 그래도 유권자에게 다가온 것은 민생이었다. 그래서 여야가 똑같이 민생(民生)을 내세웠지만, 역시 구체적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온 정책은 없는 듯하였으니 그냥 구호(口號)였다. 그리고 이 민생은 이른바 영수 회담에서도 주된 과제였다. 그런데 정작 회담이 끝나고 나서 발표한 내용 속에는 민생(民生)에 관계된 사항은 별로 없고 주된 관심은 정치의 주도권 잡기였다. 정작 하나라도 민생에 관한 합의가 있을 것을 기대하였던 소시민은 허탈하였다.

이를 보면서 인심을 잔뜩 잃었던 남송(南宋) 말의 권력자인 재상 사미원(史彌遠)이 생각났다. 사미원은 한탁주(韓侂胄)의 목을 베어 금(金)에 보내어 송금(宋金) 화의(和議)가 이루어지게 하여 출세를 시작한 사람이다. 영종(寧宗) 시절에 재상 한탁주(韓侂胄)는 송(宋)을 짓눌렀던 금(金)이 약해지는 조짐을 보고 북벌하려다가 실패하였다. 송에서는 금과 다시 화의하고 싶었지만, 금(金)에서는 북벌을 주장한 한탁주의 목을 가져오면 화의하겠다고 하자 사미원이 이 일을 주도하였다. 그 덕에 영종 가정(嘉定) 원년(1208)에 사미원은 44세의 나이로 재상이 되어 졸곧 정치적 실권자로 발호하며 군림했던 인물이다.

그 20여 년 뒤에 황제 영종이 후사가 없어서 그 뒤를 잇도록 조희(趙竑)를 황자로

삼았다. 권력자 사미원은 조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보통 황제가 이치법 자기 후계자를 선택하였으면 아무리 황제를 무시하는 권력자라도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바꿀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데 사미원은 권력을 이용하여 보이지 않게 마음에 들지 않는 후계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려는 음모를 진행했다. 그래서 언젠가는 조희를 대신하여 세울 인물을 암암리에 뽑아 준비하였다. 그 사람이 나중에 이종(理宗)이 되는 조운(趙昀)이다.

사미원은 다른 한편으로 조희를 제거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 그래서 원래 조희가 탄금(彈琴)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탄금을 잘하는 미인(美人)을 매수하여 조희에게 들여보내어 조희의 행동 하나하나 다 보고받았다. 그런데 이를 모르는 황제의 후계자 조희가 직접 "사미원은 마땅히 8천 리 밖으로 귀양보내야 한다."라고 궤언(几筵) 위에 적어 놓은 것을 알게 되었다. 조희는 사미원이 오래도록 권력을 장악하고 재집(宰執)·시종(侍從)·대간(臺諫)·번군(藩閫) 같은 높은 관직은 모두 그가 천거하였던바 권세(權勢)가 불꽃 같은 사실을 보면서 마음을 평정할 수 없어서 이러한 속 마음을 내뱉은 것이다.

이 사실은 조희의 결에 가 있던 탄금하는 미인을 통해 사미원에게 전달되었고 사미원은 조희의 이 말을 듣고 실권(失權)하게 될 위험을 느꼈다. 그리고 영종이 죽자, 사미원은 유조(遺詔)를 바꾸어 조희 대신 자기가 찍어준 조운을 황제로 세웠다. 신하가 황제를 바꾼 것이다. 이일은 아무리 비밀로 한다고 하여도 드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일은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알았다. 다만 겉으로 말을 꺼내지 않았을 뿐이었다. 황제가 곧 국가인 시절에 황제를 신하가 바꾸었다는 것은 반역이었던 시대였다. 사미원의 권력이 아무리 막강하다고 하여도 황제를 바꿀지간 사미원의 짓거리를 옳다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인심이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사미원도 기울어진 인심을 수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자기가 세운 새 황제인 이종(理宗)에게 건의하여 역물하게 황제 자리를 빼앗긴 조희를 제왕(濟王)으로 진봉(進封)하여 호주(湖州, 浙江省 湖州市)에 거처하게 하였다. 우선은 급한 대로

역물하게 황제 자리를 빼앗긴 조희를 대우하는 척하였다.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망(衆望)을 거두어들이고자 하여 황제에게 노유(老儒)를 장려하고 표창하도록 이종에게 권고하였다. 그동안 학식 있고 인품 있으며 능력 있는 사람들은 관직에 자리 잡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보면 이 정책은 획기적이었다.

이에 따라서 이종은 조서를 내려서 부백성(傅伯成, 1143~1226)을 발탁하여 현도각학사(顯謨學士)로 하고, 양간(楊簡)을 부도각학사(實謨閣學士)로 하더니, 얼마 뒤에는 부백성과 양간은 전 조정에서 매우 받던 기덕(耆德)이라고 하여 황제가 있는 행재소로 오라고 초청하였다. 이는 사미원의 정치적 제스처였다. 이 정치적 제스처가 당시에 얼마나 인심을 달랠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안하무인의 권력자 사미원도 정치적 제스처를 써 가며 인심을 달래려 한 셈이다. 그만큼 인심을 두려워한 것이다.

듣건대,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이 산더미같이 쌓였다고 한다. 보도로는 '국회 계류 중인 민생·경제법안 대부분 폐기 수순이다.'고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은 전체 1만 6,353건이고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만 1,691건이라고 한다. 이 중에는 여야의 의견 차이가 없는 것도 상당수라고 한다. 이른바 영수 회담에서 1만 6천여 건의 법안 가운데 여야 이견 없는 단 몇 개의 목록이라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타협했다면, 국민은 그래도 정치에 희망을 품을 수도 있었을 터이다. 그런데 왜 못 했을까?

교육이 문제이다. 문학, 역사, 철학 같은 인문학을 선만 위에 올려놓고 범조문이나 달달 외우는 것만이 출세의 지름길로 생각하며 학창 시절을 보냈던 두 사람이 여야 영수로 만났다. 그러니 비록 두 사람이 현재 이순(耳順)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이순하여 달관(達觀)하는 인문학적 소양을 얼마나 가졌을까?

두 사람은 사미원 같은 잡놈도 사용한 기덕(耆德)을 모시는 제스처도 못 쓴 것이다. 정치, 경제, 인문, 사회, 문화의 정책은 인간(人間)이 무엇인지를 아는 기초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인문학이 죽어간 인간을 모르면서 무슨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겠는가?

## 고사성어

권태정 전 뉴욕중앙일보 사장



## 견원지간(犬猿之間)

개견 원송이원. 오자사지. 사이간

뜻: 개와 원송이의 사이라는 뜻으로 서로 좋지 않은 관계를 이르는 말. 서로 양심을 품고 미워하는 사이를 비유하는 말로 개와 고양이 사이라는 견묘지간(犬苗之間).이라는 말도 쓴다.

유래: 중국소설 "서유기"에서 비롯되었다고 알려져 있음. 천계(天界)에서 골칫덩이 손오공을 붙잡기 위해 이랑진군이 나섰고 이랑진군은 수많은 개들을 풀어 손오공이 머리카락으로 만든 부하 원송이들을 공격하게 하였고 아무리 재주가 좋은 원송이라도 맹수 늑대의 후손인 개들을 이길 수 없었고 결국 손오공은 부하 원송이들을 모두 잃고 수많은 개들에 둘러싸여 무릎을 꿇게 되었다. 이때 싸우던 개와 원송이들을 두고 견원지간이라고 함

## 결초보은(結草報恩)

맺을 결. 풀초. 값을 보. 은혜은.

뜻: 은혜를 잊지 않고 반드시 갚는다는 뜻.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풀을 묶어 은혜를 갚는다"는 뜻.

유래: 중국 춘추시대 진나라의 위주라는 대신이 병을 앓고 있었는데 첫 번째 유언으로 젊은 후처를 본인의 사망 후에 개가시키도록 아들 위과에게 부탁하였다. 하지만 병세가 악화되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에서 후처를 순장하라는 다른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들 위과는 아버지의 다른 유언을 두고 고민하다가 정신이 온전했을 때의 유언을 따라 후처를 개가시켰습니다. 후에 위과는 장수가 되어 큰 전투에서 용맹한 적장과 맞서 싸우게 되었는데 적장의 말이 갑자기 넘어져 적장을 잡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다.

그날 밤 위과는 꿈에 후처의 아버지가 나타나 후처를 순장하지 않고 개가시켜준 은혜를 갚기 위해 풀을 엮어 놓았다고 말하였다. 이렇게 작은 은혜라도 잊지 않고 반드시 갚아야 함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결초보은의 유래입니다.

## 경국지색(傾國之色)

기울 경. 나라 국. 어조사지. 빛 색.

뜻: 나라를 기울게 하는 미녀라는 뜻

유래: 중국 한무제(漢武帝) 때 음악을 관장하는 벼슬에 있던 이연년(李延年)이 지은 시(詩)에서 비롯됨. 시의 내용은 "미인이 있어 한 번 보면 성을 위태롭게 하고 두 번 보면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구나. 하지만 미인은 다시 얻기 어렵도다"

경국지색의 사례는 중국 고대사에 나오는데 말뚝, 달기, 포사, 서시, 초선 등으로 당시 왕이나 제후의 통치방식에서 주색작기에 빠져 율바로 정사를 돌보지 않다가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사례를 보여준다.

## 안동종친회원 세종대왕 동상 및 국립고궁박물관 견학

안동권씨대종회 제50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안동종친회원 30명은 폐회식을 마치고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89 정우빌딩 2층에 자리 잡고 있는 '고봉삼계탕' 식당으로 이동, 점심 식사를 했다.

이 식당은 권오을 전 국회의원 부인이 경영하고 있어서 친근감을 더 해주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자 국립고궁박물관을 견학하기로 했다. 그러나 안동에서 올라간 시골 사람이 고궁박물관을 찾기가 쉽지 않던 차에 권오을 부인 배 여사가 자기가 직접 길 안내를 하겠다고 나섰다. 너무나 고맙고 미안할 따름이다.

우리 일행은 배 여사를 따라 가면서 광화문 일대를 구경하였다. 광화문 일대는 축제 기간이라서 그런지 세계 수십 나라가 참여, 부스마다 나라 이름을 적어놓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일행은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단체로 기념촬영을 한 후 광화문 안에 들어서니 수문장 교대식이 있었는데 외국 관광객들이 구경하면서 사진 찍기에 바쁘다.

우리 일행은 국립고궁박물관에 들어가자 실감형화성(實感華城)을 방문하고 있었다. <화성원행도>는 1795년(정조19) 윤 2월 9일부터 16일까지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수원 화성행궁에 행차한 것에 대해 그린 기록화이다.

지금까지 평면으로만 감상했던 <화성원행도>에 최신 가상 융합 기술을 접목해 230여 년 전 정조대왕이 화성행차를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실감할 수 있었다. 디지털로 체험하는 8일간의 왕실행차였다.



우리 일행은 시간에 쫓겨 <화성원행도>를 다 보지 못하고 다른 전시실로 갔다. 그곳에는 순종황제(순종皇帝 御車)도 보였다. 순종황제(재위 1907-1910년)가 탔던 어차는 미국 지엠(GM)사가 제작한 캐딜락 리무진이다.

차체는 철재가 아니라 목재이고 외부는 칠(漆)도 도장을 해 놓은 리무진 차다. 현재 세계에 이 차가 20대만 남아 있는 귀한 차다. 다른 전시실에서는 어보 4점, 은제 숟가락, 은제 오얏꽃 장식 잔, 일본에 있던 영친왕이 일시 귀국하여 1918년에 찍은 가족사진도 볼 수 있었다.

안동종친회원은 이날 배 여사 덕분에 국립고궁박물관을 둘러보고 귀향하였다.

〈권영건 보도부장〉

## 〈2024년 5월 종보대금 납부자 명단〉

납부기간: 4.29. ~ 5.29.

총 납부자 30명

지사·지국 1곳

(이름순)

단위:원

권고덕(서울서초)	30,000	권영결(서울강서)	30,000	권오갑(양주)	30,000	권지섭(서울금천)	30,000
권구현(합천)	30,000	권영달(산청)	30,000	권오철(김포)	30,000	권치영(서울종로)	30,000
권기성(안동)	30,000	권영대(영주)	30,000	권우영(대구)	30,000	권태진(부여)	30,000
권길웅(상주)	30,000	권영수(안동 와룡면)	30,000	권재모(산청)	30,000	권택승(안동)	30,000
권대균(안동)	30,000	권영식(서울강북)	30,000	권재영(안동)	30,000	권혁동(강릉)	30,000
권동현(서울강동)	30,000	권영역(안동)	30,000	권정환(상주)	30,000	권현주(강릉)	30,000
권병돈(경기광명)	30,000	권영재(예천)	30,000	권종구(대구)	30,000	지사지국 납부지역	
권수익(제천)	30,000	권영준(음성)	30,000	권종덕(인천)	30,000	경산종친회 35부	500,000

\* 연간 종보 구독대금은 3만원입니다.

총 1,400,000원

## 안동권씨 종보 구독 및 협찬 안내

국내외에 거주하는 안동권씨 남녀 및 안동 권문으로 입적된 부(婦)는 누구나 안동권씨 대종회 회원입니다.

종보는 1974년 12월 1일 창간된 이후 50여 년 동안 안동권문을 대표하는 공식 기관지로서 안동권씨 가문의 전통과 문화를 비롯하여 선조들의 인문정신과 학문적 유산, 후학들의 지혜를 모아 매월 1일 자로 발행되고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 영구 보관되고 있습니다.

종보 협찬금은 1년에 3만 원이며, 종보 발전을 위해 기금이나 광고 등으로 협찬하실 분은 대종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족친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대종회 사무처: 02-2695-2483

▶이메일 주소: andongkwonmun@daum.net

▶예금계좌: 국민은행 계좌(033237-04-006772)

## 안동권씨 대종회